

발행인: 엄재일
편집인: 이한정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14년 11월 28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110-745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이한정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760-0251
e-mail: hanjung@skku.edu

1. 월례 논문 발표회

- ▶ 12월 월례 논문 발표회가 12월 6일 숙명여대 진리관 306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월례회에는 양정석 선생님(연세대)의 기획논문 발표와 송민영 선생님(동국대)과 엄재일 선생님(홍익대)의 일반논문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및 초록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 [언어와 정보] 편집위원회는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정보]에 논문을 게재할 분들은 소정의 논문투고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와 심사용 논문(영문 요약 필수 포함)을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사용 논문은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 LaTeX 등 어떠한 조판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며, 스타일은 자유입니다. 그 외 논문 투고나 심사에 대한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게재하고자 하는 특정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를 원하시면 발간일 기준 적어도 60일 이전에 투고를 하셔야 합니다. 발간 일정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이유로 해당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제19권 1호 (2015년 6월 30일 발간): 2015년 4월 30일 원고 마감
- 제19권 2호 (2015년 12월 31일 발간): 2015년 10월 30일 원고 마감

-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60,000원 (3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3인 심사, 20쪽 분량 기준):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30,000원)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30,000원)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80,000원)

- 참고

1)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지 않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 논문 투고에서 게재까지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고신청서 작성 (투고자, 서식은 홈페이지) -> [2] 투고 (투고자) -> [3] 심사료 입금 (투고자) -> [4] 심사 의뢰*3인 (편집위원회) -> [5] 심사 결과 취합 (편집위원회) -> [6]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 -> (게재 확정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게재 불가인 경우 [6]에서 종료) -> [7] 수정 보완요구서 (편집위원회) -> [8] 수정보완이행확인서 (투고자) -> [9] 게재료 납부 (투고자) -> [10] 수정 논문 제출 (투고자) -> [11] LaTeX 조판 작업 (편집위원회) -> [12] 교정*3회 (투고자) -> [13] 출판 (편집위원회/출판사)

▶ 논문 투고나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 (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월례 발표회장에서 또는 아래의 학회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82-598367, 예금주: 김미숙)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 회원님들께서는 올해부터는 일반회원이 되어 4만원씩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명단 참조)

▶ 회원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총무이사 (hanjung@skku.edu)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2014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원: 강범모(고려대),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용범(광운대), 김은주(이화여대), 김중복(경희대),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박소영(상명대), 박은주(오사카대), 박종철(KAIST),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이한정(성균관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영한(인하공전),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조영순(전남대), 최재웅(고려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연회비 선납 처리 ~2012년]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량혜윤(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목(SKT), 김용환(양산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정회원: 박유경(서울대), 송상현(고려대), 염재일(홍익대), 임서현(서울대), 이영주(서울여대), 이정민(서울대), 이주익(경북대), 장석진(서울대), 채희락(한국외대), 홍민표(명지대)

▶ 준회원: 박은영(충남대), 신재연(서울대), 윤혜림(홍익대), 이혜연(서울대)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면 총무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월례회/강독회 장소 오시는 길

- ▶ 이번 월례회와 강독회는 숙명여대 진리관 306호에서 열립니다.
- ▶ 숙명여대 제1캠퍼스 오시는 길: 4호선 숙대입구 역 10번 출구에서 효창공원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아와 갈월지하도를 건너 5분 정도 도보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제1캠퍼스 정문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정문까지 도보로 약 10-15분). 버스와 자가운전으로 오시는 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버스: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1>
자가운전: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2>
- ▶ 주차: 정문 입구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고, 할인권을 (4시간 주차 2천원) 총무이사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 ▶ 제1캠퍼스 진리관은 아래 지도에서 4번 건물입니다 (10번이 정문).
- ▶ 월례회 후 점심식사는 숙명여대 근처 ‘더함’ 한정식(02-707-3692)에서 있습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14학년도 12월 월례회 및 강독회 일정표
월례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306호 일시: 12월 6일 9:30 – 12:00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9:30-10:30	기획	양정석 (연세대)	기준 판단자의 도입과 주관성 형용사, 양상, 증거성	전영철 (서울대)
Coffee Break (10분)				
10:40-11:20	일반	송민영 (동국대)	The Semantics of Evidentials in the Propositional Attitude Constructions	
11:20-12:00	일반	염재일 (홍익대)	So-called pseudoclefts in Korean	

2014년 12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기준 판단자의 도입과 주관성 형용사, 양상, 증거성
 양정석(연세대)

기준 연구에서는 다음 표현들을 통사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무관한 현상으로 다루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 요소를 가지는 구문들(‘주관적 판단 구문’)이 Stephenson(2007, MIT dissertation)의 ‘기준 판단자(judge of evaluation)’ 개념에 의존하는 해석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됨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가능세계와는 별도의 ‘맥락(context)’, 이에 관련되는 ‘특성(character)’, ‘내용(content)’의 개념(Kaplan1989)과, 연산자에 결속되는 변수로서의 맥락 개념(Schlenker2003)의 발전선상에서, 기준 세계, 기준 시간에 더한 기준 판단자의 개념(Lasersohn2005, Stephenson2007)을 가능세계 의미론에 도입하는 이론적 실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 가. 주관성 형용사: 좋다, 싫다, 춥다, ...

나. 양상(modality)의 표현: ‘-겠-’, ‘-을 것이-’, ‘-는가/나 보다’, ‘-는가/나 하다’, ‘-는가/나/지 싶다’, ‘-고 싶다’, ‘-는/은/을 듯싶다’, ‘-을 성싶다’, ‘-는/은/을 모양이다’, ‘-음직하다’, ‘-을 법하다’, ‘-을 수 있다’, ‘-는/은/을 것 같다’, ‘-거든’ 부류의 연결어미들, ‘-으니까’ 부류의 연결어미들
 다. 증거성(evidentiality)의 표현: ‘-더-’, ‘-네’

본 발표에서는 (1가)의 주관성 형용사 구문, (1나)의 ‘-겠-’ 구문, (1다)의 ‘-더-’ 구문이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문법성(적격성)의 대비, ‘-었-’/‘-겠-’의 개입에 의한 부적격성의 해소 현상들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 (2) 가. 나는/*너는/*순희는 인호가 싫다.
 나. 철수는 e_i /자기/가/*네가/*순희가 인호가 싫다고 말했다.
 다. *나는/*순희는/너는 인호가 싫으냐?
 라. 철수는 순희에게 * e_i /*자기/가/ e_j 인호가 싫으냐고 물었다.
- (3) 가. 나는/*너는/*순희는 그곳에 가겠다. ('의도' 해석으로)
 나. 철수는 e_i /자기/가/*네가/*순희가 그곳에 가겠다고 말했다. ('의도' 해석으로)
 다. *내가/*그가/네가 그곳에 가겠느냐? ('의도' 해석으로)
 라. 철수는 순희에게 * e_i /*자기/가/ e_j 그곳에 가겠느냐고 물었다.('의도' 해석으로)
- (4) 가. 나는/*너는/*순희는 인호가 싫더라.
 나. 철수는 e_i /자기/가/*네가/*순희가 인호가 싫더라고 말했다.
 다. *나는/*순희는/너는 인호가 싫더냐?
 라. 철수는 순희에게 * e_i /*자기/가/ e_j 인호가 싫더냐고 물었다.
- (5) 가. *내가/네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라.
 나. 철수는 * e_i /*자기/가/네가/인호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라고 말했다.
 다. 내가/인호가/*네가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냐?
 라. 철수는 너에게 내가/인호가/* e_i /*자기/가/* e_j 대홍극장에 들어가더냐고 물었다.

The Semantics of Evidentials in the Propositional Attitude Constructions

Mean-Young Song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neither the classical semantic treatment of the propositional attitudes (Hintikka (1969)) nor the previous semantic analyses of the hearsay or reportative evidentials fit into the semantics of the English hearsay/reportative evidentials, as exemplified in *I heard that Jane is a double agent*. This is mainly because not only is the notion of the compatibility that is employed in the semantics of propositional attitudes inappropriate for that of hearsay evidentiality, but they can be interpreted to convey an assertion, in which the speaker commits to the truth of the embedded proposition, and a proffering, in which the speaker does not. In order to account for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this paper develops an analysis of the English hearsay evidential, which is along the lines of that proposed by Krazter (1991), by positing different ordering sources for each of the interpretations. The introduction of the different ordering sources into the semantics of the hearsay evidentials plays the role of indicating whether or not the speaker commits to the truth of the proposition expressed by the embedded clause.

So-called Pseudoclefts in Korean

염재일 (홍익대)

국어에서 소위 말하는 pseudocleft는 원래 문장의 일부가 제외된 부분이 "것"을 수식하는 관계절 형태로 나타나고 문장에서 제외된 부분이 계사 앞에 나타나서 초점을 받는 구조를 말한다. 그런데 국어에서 pseudocleft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격조사가 붙은 명사구가 초점을 받는 경우 계사 앞에서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격조사가 아닌 다른 후치사구는 계사 앞에서도 후치사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 두 구조는 다른 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후치사가 있는 구는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초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격조사가 붙는 명사구는 오직 하나만이 계사 앞에 나타난다. 일반적인 pseudocleft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이 달리 취급되어야 함을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국어나 일본어의 pseudocleft에 대한 연구들은 중요한 점들을 포착하지 못함을 보여준다.